

# 농식품부, “봄철 한우·한돈 할인행사로 물가 부담 낮춘다”

## 이달 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진행 다양한 유통채널서 한돈 할인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캠핑 등 야외활동 증가로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4월 한 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1차로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2개 업체, 2133개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2차 행사

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린다.

1차 행사에서는 평소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1등급 등심은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73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등으로 판매한다.

4월 한 달 동안 한돈 할인행사도 3회 실시한다.

1차 행사는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351개 매장), 전국 농축협 하나로

마트(450여개 매장)에서 열린다. 2차 행사는 11일부터 12일, 3차 행사는 22일-23일로 예정돼 있다.

한돈 할인행사에서는 평소 판매가격의 약 20% 내외 할인된 가격(삼겹살 100g당 2100원 이하)으로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가격(2281원·100g)과 비교하더라도 저렴한 수준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한우·한돈 농가들을 위해 연중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태양광 설치하고”

### 롯데칠성, 맥주 탄산가스 직접 만든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보인 식품업계가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통해 새 미래 먹거리 발굴을 선언하고 나섰다.

직접 탄산가스를 제조하거나 이커머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사물을 강화하는가 하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신규 사업을 추가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 된 가운데 상당수 식품 기업들이 사업목적에 신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3조 클럽에 입성한 롯데칠성음료는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식품용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을 추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식품용 액화탄산가스 제조업 군산공장에서 탄산음료나 주류를 제조할 때 쓰이는 ‘식품용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할 예정이다.

록 하기 위해 정관을 추가했다”며 “향후 통합 배송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주총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유통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했다. 이는 정관 변경을 통해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등 관련 시장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상은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을 추가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쇼핑몰’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 관계자는 “마케팅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어렵지만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G는 주총에서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KT&G는 그동안 권역별 전자담배 기계(디바이스 및 부속품)를 유통 대행사 등을 통해 판매해 왔으나 앞으로 자사 온라인몰 구축해 직접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KT&G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 확대를 통한 유통 경쟁력 제고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것”이라며 “기존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방식 외에 자체 온라인몰 구축을 통한 전자담배 디바이스 등의 직접 판매 및 운영을 추진 중이며 국내 핵심 판매 채널로서 온라인몰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림지주는 주총에서 통신판매 중개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제공 사업, 농·수·축·임산물 대리점업, 프랜차이즈 및 체인점 관련 서비스업 등을 신사업 목적적으로 추가했다.

파라다이스도 사업목적으로 주류 소매업을 추가한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빈티지 와인 사전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를 통해 VIP 고객 유입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일본 VIP 고객이 힘입어 카지노와 복합리조트가 정상화되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14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약 104억원) 대비 1299.9% 증가한 액수다. 매출은 역대 최대인 약 9942억원으로 전년(약 5876억원) 대비 69.1% 늘었다.

반면 유통업계는 이번 주총에서 신규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곳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롯데하이마트가 유일하다. BGF리테일은 주총에서 사업목적에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을 추가했다.

CU 관계자는 “리테일 테크 고도화 및 고객 차별화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목적”이라며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것으로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사업목적에 옥외광고 사업을 추가했다. 기존 사업 목적에 있던 자동차 판매중개와 대행업, 여행업, 관광여행알선업, 각종 오락장, 방역소독업 등 미운영 사업은 삭제했다.

다만 롯데쇼핑,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 공룡’ 대기업 가운데 이번 주총에서 사업 목적을 추가한 곳은 없다.

뉴시스

## “업무·휴식 동시에”...근로복지공단, 속초 콘도 6만원에 제공

### 속초시와 ‘위케이션’ 업무협약...근로자 휴양콘도 저렴 이용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강원도 속초시와 ‘위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전국의 주요 콘도 등 휴양

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이다.

모든 근로자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콘도는 한화, 소노(대명), 캔싱턴, 리움 등 8개사다.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조식 제외, 패밀리룸)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9만2000원이다.

공단은 이에 더해 속초시와 위케이션 협약을 맺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형태다.

예컨대 근로자가 속초시 소재 콘도를 1박2일간 이용하면 숙박비 12만원, 조식 및 여행자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공단과 속초시가 협정한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000원(공단 할인 50% 및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000원(속초시 지원 40%) 등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금액인 데다 콘도 내 공유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위터파크 이용 등 체험 프로그램 비용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한편, 향후 다른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위케이션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슬비기자

## 광주신세계, 봄 정기세일 ‘최대 할인 혜택’ 쏟아진다

### 오는 14일까지 100여개 브랜드 참여...이벤트홀 행사 다채

(주)광주신세계백화점이 야외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을 맞아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3월 3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세일은 ‘신백 멤버스 페스타’를 테마로 오는 4월 14일까지 총 127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봄철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즌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

본관 8층 닥터하우스, 엔스티치, 리스트는 최대 50%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고, 지하 1층 프레스파인드, 더매중, 5층과 신관 지하 1층의 와릿이즌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트로시티 등 핸드백부터 슈즈미스, 폴

햄, 게스진, 올리브데올리브 등 여성브랜드를 비롯해 본, 레노마 등 남성 브랜드는 30% 할인한다.

신관 지하 1층 책시믹스, 골 스튜디오 스포츠 브랜드와 버키루, 세컨스킨, 엘르, 게스 이너웨어도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두부터 핸드백, 주얼리, 선글라스 등 봄 나들이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

이슬러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선 내달 7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백토리 스토어’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의 안목으로 다양하게 준비한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30% 이상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서은옥기자



광주신세계는 제휴카드로 구매 시 내달 17일까지 패션·잡화 단일 브랜드에 한해 당일 30만원, 60만원, 90만원 이상 결제 시 7% 신백리워드를 제공한다.

신백리워드는 신세계백화점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한다. 구매 금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거나 이벤트, 사은행사 등에 당첨되면 적립 받을 수 있다.

서은옥기자

## 일체형 세탁건조기 대전...삼성, LG보다 건조기 효율 높아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의 소비전력량이 LG전자 등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 건조기 소비전력량, LG보다 낮아...319 vs 380

3월 31일 미국 에너지스타에 따르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미국 모델의 연간 건조기 소비전력량은 319킬로와트시(kWh), 건조기 효율을 나타내는 CEF는 7.50로 나타났다. CEF는 에너지스타의 건조기 에너지 성능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건조기 효율이 높다는 의미다.

LG전자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미국 모델의 연간 소비전력량은 380kWh, CEF는 6.30로 나타났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세탁건조기 제품의 연간 소비전력량은 399kWh, CEF는 6.00로 파악됐다.

연간 세탁기 소비전력량은 삼성이 103kWh, LG가 99kWh로 나타났으며 세탁기 효율을 나타내는 IMEF는 둘 다 2.92로 동일했다.

드럼 용량은 삼성이 5.3입방피트(세제곱피트·약 150L), LG 5.0입방피트(142L), GE 4.8입방피트(136L)로 나타났다.

변용일기자